세계은행 워크숍(오스트리아) 참석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Ⅰ. 출장 개요 ····· 1

Ⅱ. 출장 성과 ····· 3

Ⅲ. 주요 활동(세계은행 워크숍 참석) ····· 4

가. 개요 ····· 6

나. 주요내용 ····· 7

1. 요약 ····· 7

2. 워크숍 오프닝 발제 ····· 7

3. 세계은행 지역국장 면담 ····· 16

※ 별첨자료

[별첨 1] 방문국 자료 ····· 18

[별첨 2] 서부발칸 6개국 및 세계은행 자료 ····· 23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세계은행 워크숍 참석

○ 워크숍 오프닝 발제(Public Finance of Korea, and NABO)

○ 세계은행 지역국장 면담(Linda van Gelder, Country Director)

2 출장단

❑ 단장 : 이승재(예산분석실장)

❑ 단원 :

○ 이동훈(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 조흥연(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 정책분석관)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내용
3.5(화)	○ 인천(13:15) → 비엔나(16:50) ○ 자료 정리 및 워크숍 준비
3.6(화)	○ 세계은행 워크숍 참석 ○ 비엔나 출발(17:40)
3.7(목)	○ 인천 도착(15:30)

II. 출장 성과

1 한국의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이행 경험 공유

○ 워크숍 참석 서부발칸 6개국은 한국의 재정기구 운용을 “Role Model” 로서 참고 희망

○ 서부 발칸 6개국의 재정준칙 운용 방식 및 향후 제도 도입 기대 확인

2 세계은행과 NABO의 협력관계 증진 기대

○ 한국의 재정 및 독립재정기구 운용 등에 관심

○ 향후 월드뱅크와 NABO와의 Co-work 추진 지속 기대(자료교환 및 상호 방문 등)

III. 주요 활동

세계은행 워크숍 참석

△ 워크숍 오프닝 발제

△ 세계은행 지역국장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3월 6일(수)

❑ 장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 The World Bank Group Vienna Office

❑ 주요 참석자

- **George Kopit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 **Gallina Vincelette**, Practice Manager(World Bank)
- **Niels Thygesen**, Chairman(European Fiscal Board)
- **Jose Luis Escriva**, Chair of the Network of EU IFIs and President of AIReF
- **Nikola Altiparmakov**, Member of the Fiscal Council(Republic of Serbia)
- **Anetta Čaplanov**, Council Member(Slovakia)
- **Stefan Ciobanu**, Head of Fiscal Governance Unit(European Commission)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한국의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이행 경험 공유

❑ 세계은행과 NABO의 협력관계 증진 기대

(2) 워크숍 오프닝 발제(Public Finance of Korea, and NABO)

❑ 발제 내용

(한글)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이승재입니다.

먼저, 여러 국가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세계은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재정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의 재정 현황과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Key Player: NABO"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재정현황과 재정준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2019년 확정예산기준 총수입은 GDP대비 27.5%인 476.1조원, 총지출은 GDP대비 27.1%인 469.6조원입니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0.3%인 6.5조원으로, 현재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감소로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43.3% 수준으로, OECD 평균 110.7%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발칸 6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2.5% 수준입니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2018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인인구 비중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은 재정수입 감소, 사회보장기금 지출의 증가로,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NABO가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50년에는 GDP 대비 8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계 각국은 재정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은 유럽연합의 '성장과 안정 협약'에서 각국의 재정수지를 GDP대비 3%, 국가채무를 GDP대비 60%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국가채무 등 총량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재정운용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준칙은 target으로 하는 지표에 따라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OECD 국가들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입니다. 하나의 준칙만을 운용하거나 둘 이상의 준칙을 동시에 운용하는 등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재정준칙의 운용모습은 다양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자를 GDP대비 0.5%이하로 제한하는 수지준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GDP대비 신규 채무를 0.35% 이내로 제한하는 채무준칙을, 미국은 의무지출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 시 재원조달방안의 입법도 의무화하는 Pay-go 지출준칙을, 네덜란드는 세수초과분의 50%는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수입준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칸 6개국의 경우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4개국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수지준칙, 지출준칙, 채무준칙을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을 편성하도록 하는 수지준칙과, 국세감면 한도를 규정하고, 세계잉여금 발생 시 처리순서를 규정하는 수입준칙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를 제한하는 채무준칙이 없고, 수입준칙 외에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재정준칙의 규율정도가 약한 편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재정준칙 이행을 점검하는 등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Key Player인 NAB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ABO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회 차원의 재정관련 싱크탱크 필요에 의해국가재정을 감시하는 Fiscal Watchdog이자 의회 소속 IFI로서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138명이며, 기획관리관,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ABO는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NABO는 지금 미 CBO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독립재정기구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제10회 OECD IFI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NABO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Spending Review”라는 독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사업은 7,700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NABO는 대부분의 사업을 분석하고, 작년에는 1,600여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국회 심사 시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을 보다 내실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NABO는 3,000여 건이 넘는 신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 심사 시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게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signal을 사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경제 저성장 기조에서 Pay-go 원칙 등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Pay-go 원칙을 도입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를 45% 수준으로 제한하는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적자를 GDP대비 3%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지준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도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NABO는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위해 총괄분석과 장기전망 기능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준칙의 이행을 점검하는 등 Fiscal Watchdog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 발칸국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가에도 "건전한 재정과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 Good morning, my name is Sungjae Lee, Assistant Chief for Budget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 would like to thank the World Bank for inviting me to this venue, where fiscal experts from each country have convened.

To get back to the presentation, let us take a moment to watch a short video clip of the fiscal status of Korea and NABO.

I will begin my presentation on "Korea's fiscal status and rules," followed by "NABO, the key player for ensuring fiscal soundness" and finish with "Moving towards fiscal soundness and a hopeful future."

Let me begin with Korea's fiscal status and fiscal rules.

This is the confirmed 2019 budget: Total revenue is 421.3 billion dollars, which is 27.5% of the Korean GDP. The total expenditure is 415.6 billion dollars, which is 27.1% of the GDP.

The fiscal balance has resulted in a surplus for now, at 5.7 billion dollars, which is 0.3% of GDP.

However, it is expected to turn into a deficit from 2020, due to a reduced surplus from the Social Security Fund (SSF).

For reference,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the average public expenditure-to-GDP ratio of the six Western Balkan countries is 37.2%,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Korea's 27.1%.

Korean government debt in 2018 was 43.3% of GDP. This is a relatively moderate level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which is 110.7%.

For reference,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the average government debt-to-GDP ratio of the six Western Balkan countries is 52.5%. The fiscal conditions in Korea appear to be relatively strong, but there are negative factors as well.

Korea's birth rate in 2018 is expected to be around 0.98 child per fertile woman, while more than 14% of the population is over 65 years old.

Also,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fall to around 2.7% in 2019. Such trends of low birth, aging and low growth may threaten fiscal soundness.

With that in mind, NABO has conducted a long-term fiscal projection, which concludes that Korea's national debt will reach 85.6% of GDP by 2050.

Against this backdrop, 'how to secure fiscal soundness' is most likely a challeng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ll other economies represented here today.

Each country has set fiscal rules as an institutional tool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Fiscal rules can be defined as "Concrete and binding fiscal management targets for overall fiscal indicators, including those targeting national debt."

Depending on the target indicator, there are largely four categories of fiscal rules: budget balance rules, debt rules, expenditure rules and revenue rules.

This slide indicates the current status of fiscal rules set by OECD member countries.

Fiscal rules are implemented in diverse ways according to national circumstances, either by implementing a singular rule or a multiple set of rules.

France has implemented budget balance rules that limit its fiscal deficit to no more than 0.5% of GDP. Germany has a set of debt rules that restricts new debts to a maximum 0.35% to GDP.

The US has the PAY-GO rules, which mandate the legislation of financing methods when introducing a new bill that requires a mandatory expenditure increase or incurs a tax revenue decrease. The Netherlands has a set of revenue rules under which 50% of excess tax revenues are used to pay off debts.

According to the World Bank, among the 6 Western Balkan countries, Albania, Kosovo, Montenegro and Serbia appear to have implemented the balance budget rules, expenditure rules and debt rules, although the detailed provisions may differ.

Now, let us take a look at Korea. Korea has in place budget balance rules, under which the budget allocation principle ensures that expenditure allocation shall not exceed tax revenues.

It also has revenue rules, under which limits on national tax cuts are set, and the order of appropriating any tax surplus is stipulated.

However, there are no debt rules that restrict national debt, and all fiscal rule types except for the revenue rules are merely declaratory. Thus, the disciplinary level of Korean fiscal rules is generally low.

Next, let me give you an introduction to NABO, a key player for ensuring fiscal soundness through efforts that include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fiscal rules.

There was a call for strengthened fiscal soundness since Korea was hit by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it wa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set up its own think-tank for fiscal affairs.

To meet this need, NABO was established in 2003 as a fiscal watchdog monitoring national finances and as an IFI under the National Assembly.

NABO currently has 138 staff members, consisted of four departments: Planning & Management, Budget Analysis, Estimates and Tax Analysis and Economic Analysis.

Based on expertise, non-partisanship and objectivity, NABO's vision is "The best fiscal institution serving National Assembly and public."

After the US CBO, in terms of organizational size, NABO has grown to become the world's second largest independent fiscal think-tank.

In 2018, NABO even hosted the 10th Annual Meeting of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fiscal soundness, NABO conducts unique "Spending Reviews". Korean government-led projects consist of about 7,700 individual programs. NABO conducts an analysis of most of these programs, and submitted reports on around 1,600 programs last year.

These reports serve as reference for actually adjusting the budget plans during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s, contributing to reinforcing the fiscal management process.

Moreover, NABO provides information on cost estimation for more than 3,000 new bills, so that parliamentarians may take into account the cost factor when deliberating on legislation.

Last but not least, NABO has conducted a long-term fiscal projection up to the year 2050, signalling in advance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Finally, let me introduce the efforts Korea is making towards achieving fiscal soundness and a hopeful future.

In 2016,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a "Code for Fiscal Stability" in Korea, during periods of low growth.

Details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the PAYGO principle, under which any proposal of budget-related bills must be accompanied by a report on the associated financing methods; Debt rules that limit the national debt ceiling to 45% of GDP; as well as budget balance rules that restrict the fiscal deficit to around 3% of GDP.

Although this bill was not passed into legislation, the discussion regarding fiscal rules is likely to continue.

Moving forward, NABO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as Korea's "fiscal watchdog" to achieve fiscal soundness and a hopeful future, through concerted efforts such as the continued strengthening of its comprehensive analysis and long-term forecasting capacity,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fiscal rules.

In conclusion,I hope that the Western Balkan countries and all other countries represented today achieve "fiscal soundness and a hopeful futur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3) 세계은행 지역국장 면담(Linda van Gelder, County Director)

❑ **Linda van Gelder**

○ 먼저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에 NABO를 초청한 것은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지원국가의 프로젝트 구상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NABO 대표단**

○ 저희에게 오프닝 발제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대한민국 그리고 NABO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Linda van Gelder**

○ 월드뱅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정은 OECD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이번 오프닝 발제 관련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NABO 대표단**

○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계은행과 NABO가 CO-WORK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색하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Linda van Gelder**

○ 한국은 재정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가 중의 하나로 서부 발칸 6개국 등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 저는 지역국장으로서 NABO와의 CO-WORK를 통해 한국과 서부발칸6개국의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오늘과 같은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NABO 대표단**

○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시어 독립재정기구로서 NABO의 역할, 한국의 재정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직접 보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첨 1 방문국 자료

1. 오스트리아 개관

○ 국　　명 : 오스트리아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 수　　도 : 비엔나 (독일어 : 빈, 인구 183만명)

○ 면　　적 : 83,879㎢ (한반도의 약 2/5)

○ 인　　구 : 약 870만명

○ 민　　족 : 오스트리아계(73%), 슬라브계(8.2%), 터키계(2.5%), 독일계(2.3%) 등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카톨릭(64%), 이슬람교(8%), 개신교(5%), 정교(5%), 무교(17%) 등

○ 기　　후 : 온난한 대륙성 기후이나, 알프스 산맥은 강수량이 높고 겨울이 긴 편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9개주로 구성)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양원제

- 상 원 : Bundesrat(임기 5년, 61석)
- 하 원 : Nationalrat(임기 5년, 183석)

○ 주요정당 : 국민당, 사민당, 자유당, NEOS당, PILZ당

○ 유엔가입 : 1955. 12. 14

○ EU 가입 : 1995. 1. 1

○ 국 경 일 : 10.26(1955년 중립국 선언 기념일)

○ GDP : 41.7억불 (2017)

○ 1인당 GDP : 47,545불 (2017)

○ 경제성장률 : 2.9% (2017)

○ 물가상승률 : 2.2% (2017)

○ 실 업 률 : 5.5% (2017)

○ 화폐단위 : 유로 (2002.1.1. 도입)

○ 의무교육 : 9년 (6-15세)

○ 군 사 력

- 현 역 : 30,000명
- 예비역 : 25,000명

2. 의회 현황

▣ 상 원(Federal Council)

○ 의회형태: 양원제

○ 임 기: 5년 (오버외스터라이히 주는 6년)

○ 선출방식:

- 9개 주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 의장은 각 주 대표의원이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돌아가며 수임

○ 회 기: 하원 본회의 2주 후에 개최

○ 의 석 수: 현재 61석(주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 주요정당별 의석분포

- 국민당(ÖVP)(22석, 36%) : 1945년 창당한 보수성향 기독교 민주당으로, 농민·상인·실업계 및 일부 화이트칼라 계층이 주된 지지 기반(당대표 Sebastian Kurz 총리)
- 사민당(SPÖ)(20석, 32.8%) : 1889년 창당, 노동자 및 일부 화이트칼라 계층이 지지 기반이며, 비엔나 지역에서 강세(당대표 Christian Kern 전 총리)
- 자유당(FPÖ)(12석, 19.7%) : 1956년 반마르크스주의를 기치로 창당하였으며, 극우적 색채가 강한 정당(당대표 Heinz- Christian Strache)

▣ 하　원(National Council)

○ 의회형태: 양원제

○ 임　　기: 5년

○ 최근총선일: 2017.10.15

○ 선출방식: 국민 직선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제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의석은 d'Hondt 식으로 배분

○ 회　　기

- 정기회: 9.15 이후부터 익년 7.15 이전까지의 기간 중 연방대통령이 개회
- 임시회: 하원 또는 상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2주 이내에 소집

○ 의 석 수: 183석

○ 주요정당별 의석분포

- 국민당(ÖVP) : 62석, 33.9%
- 사민당(SPÖ) : 52석, 28.4%
- 자유당(FPÖ) : 51석, 27.9%

3. 분야별 주요 이슈

1 정치

▣ 신 보수 연정 내각 출범(2017.12.18.)

o 2017.10.15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ÖVP)이 1위, 중도좌파 사민당(SPÖ)이 2위, 극우 자유당(FPÖ)이 3위를 차지함에 따라, 2017.12.18. 국민-자유당 신연정 출범

- 그간 오스트리아 중도 좌-우파 협치의 상징이었던 사민당-국민당간 제3기 대연정(2007-2017)은 종료하고, 정책적 공통성을 갖고 있는 국민당-자유당간 보수 우파 연정 구성

- 난민 및 이민자 정책, 조세, 복지 정책 등에서 상당히 보수화된 정책 추진

2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현안

▣ 고위인사 교류 강화

o 오스트리아 정부기관 고위층, 의회인사 등 유력인사와의 교류 강화 및 친한화 사업 추진

▣ 한-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o 1999년(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오스트리아대사 재직 당시) 창단 이래 2017년까지 총 19회 공연을 통해 현지에서 성공적 오케스트라로 발전

o 2018년은 제20회 기념공연으로, 오스트리아 3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개최하여 한-오 양국 친선관계 증진에 기여 예정

별첨 2 서부발칸 6개국 및 세계은행 자료

1. 알바니아 개관

❑ 일반사항

- ○ 국명 : 알바니아 공화국 (Republic of Albania)
- ○ 수도 : 티라나(약 70만명)
- ○ 인구 : 약 300만명
- ○ 면적 : 28,748㎢(한반도의 약 1/8)
- ○ 민족 : 알바니아계(95%), 그리스계(3%), 기타(2%)
- ○ 종교 : 이슬람교(56.7%), 동방정교(6.8%), 로마가톨릭(10%)
- ○ 정부형태 : 의회민주제(대통령제 가미)
- ○ 의회구성 : 단원제(140석, 임기4년)

❑ 경제현황 (2017)

- ○ GDP : 153억불 (IMF)
- ○ 1인당 GDP : 5,320불 (IMF)
- ○ 교역규모 : 49억불 (CIA) 수출 : 9억불
- ○ 수입 : 40억불
- ○ 경제성장율 : 3.7% (IMF)
- ○ 주요자원 : 크롬, 니켈, 철광석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91.08.22

○ 공관장 현황 우리측 : 임수석 주그리스 대사 겸임

○ ‘알’측 : 꾸이팀 쟈니(Kujtim Xhani) 대사(북경상주, 11.9월 신임장 제정)

○ 교역현황 및 주요품목(‘17, KITA) 수출 : 1,177만불(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타이어, 휴대전화 등)

○ 수입 : 466만불(연초류, 피혁류, 물.편직의류, 수산가공품, 알루미늄, 한약재 등)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개관

❑ 일반사항

○ 국명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BiH))

○ 수도 : 사라예보(52.6만명)

○ 인구 : 386만명

○ 면적 : 51,209㎢(한반도의 약 1/4)

○ 민족 : 보스니아계(48%), 세르비아계(37%), 크로아티아계(14%), 기타

○ 종교 : 이슬람교(40%), 세르비아 정교(31%), 로마 가톨릭(15%), 기타

○ 국가성립 : 92.3.1 구유고연방에서 독립 ※ 92.5.22 UN가입

○ 국가형태 : 1국(BiH) 2체제(FBiH, RS) 2체제 구성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 보스니아계 및 크로아티아계(10개州)

○ 스르프스카 공화국(RS) : 세르비아계

○ 의회구성 : 양원제 하원 : 15석(3대 민족계파별 5석)

○ 상원 : 42석(FBiH 28석, SR 14석)

❑ 경제현황 (World Bank)

○ GDP : 162억불

○ 1인당 GDP : 4,670불

○ 경제성장률 : 2.8%

○ 물가상승률 : -1.1%

○ 교역규모 : 140억불 수출 : 47억불

○ 수입 : 93억불

○ 화폐단위 : 보스니아 마르크(BAM) *유로화 연동(1euro=1.96마르크)

○ 주요자원 : 철광석, 목재 등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95.12.15 우리측 : 박원섭 주크로아티아대사가 겸임 * 2009년 이전에는 주헝가리 대사가 겸임

○ 보스니아측 :아네사 쿤두로비치(Anesa KUNDUROVIC) 주일본 대사 겸임

○ 교역현황(2017, KITA) 수출 : 3백만불(승용차, 신발, 건설중장비)

○ 수입 : 21백만불(금속광물, 직물제 의류 등)

3. 코소보 개관

❑ 일반사항

○ 국명 : 코소보 공화국 (Republic of Kosovo)

○ 수도 : 프리슈티나(Priština, 약 57만명)

○ 인구 : 189만명(2017)

○ 면적 : 10,908㎢(한국의 약 1/20)

○ 인종 : 알바니아계(91%), 세르비아계(4%) 등

○ 종교 : 이슬람교(95%), 카톨릭(2.2%), 세르비아 정교(1.5%) 등

○ 공용어 : 알바니아어, 세르비아어

○ 독립일 : 2008.2.17(세르비아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 단원제(120석, 임기 4년)

❑ 경제현황(2017, IMF 추정치)

○ GDP : 67억불

○ 1인당 GDP : 3,580불

○ 물가상승률 : 0.9%

○ 경제성장률 : 3.3%

○ 실업률 : 27%

○ 무역규모 수출 : 3.09억(코소보중앙은행/ 주요품목 : 광물, 가공금속, 플라스틱류, 식품 등)

○ 수입 : 28억(코소보중앙은행/ 주요품목 : 식품, 기계류, 광물, 플라스틱류 등)

○ 산업구조 : 농업(5.9%), 제조업(16.8%), 서비스업(77.3%)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가승인 : 2008.3.28

○ 공관 : 없음(미수교국으로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 관할 / 코소보측은 주일본대사관에서 관할)

○ 재외동포 수 : 24명

4. 몬테네그로 개관

❑ 일반사항

○ 수도 : 포드고리챠(Podgorica, 18.6만명)

○ 인구 : 65만명

○ 면적 : 13,812㎢(한반도의 1/7수준)

○ 인종몬테네그로계(45%), 세르비아계(28.7%), 보스니아계(8.7%), 알바니아계(4.9%) 등

○ 종교 : 정교(72.1%), 이슬람(19.1%), 카톨릭(3.4%), 기타(3.4%)

○ 독립일 : 2006.6.3(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에서 독립)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대통령직선)

○ 의회구성 : 단원제(81석, 임기 4년)

❑ 경제 현황(EIU)

○ GDP(2017) : 44.9억불

○ 1인당 GDP : 7,071불

○ 교역규모 : 28.9억불 수출 : 4.1억불

○ 수입 : 24.8억불

○ 경제성장률 : 4.2%

○ 물가상승률 : 2.4%

○ 화폐단위 : 유로(EUR)

○ 부존자원 : 보크사이트, 수력발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가승인 : 2006.06.21

○ 외교관계 수립 : 2006.09.04

○ 공관현황 : 주세르비아대사관에서 겸임 유대종 주세르비아 대사 겸임

○ Branko PEROVIC 주중국 대사 겸임

○ 교역규모(2017, KITA) : 365만불 수출 : 305만불

5. 세르비아 개관

❑ 일반사항

○ 수도 : 베오그라드(163만명)

○ 인구 : 711만명

○ 인종 : 세르비아인(83.3%), 헝가리인(3.5%), 로마인(2.1%), 보스니아인(2%) 등

○ 면적 : 88,361Km²(한반도의 1/3)

○ 종교 : 세르비아정교(84.6%), 카톨릭(5.5%), 이슬람(3.1%) 등

○ 언어 : 세르비아어

○ 국경일 : 02.15(국가제정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대통령 직선, 임기 5년)

○ 의회구성 : 단원제 (의석 250석, 임기4년)

○ 주요정당 : 세르비아혁신당(SNS), 세르비아사회당(SPS), 세르비아개혁당(SRS), 민주당(DS), 세르비아민주당(DSS) 등

❑ 경제현황(2017, EIU 추정치)

○ GDP : 416억불

○ 1인당 GDP : 5,599불

○ 교 역 : 341억불 (수출 148억불/수입 193억불)

○ 물 가 : 1.9%

○ 화폐단위 : Dinar(RSD) (1$=98.18Dinar)

○ 주요자원 : 석탄, 구리, 납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89.12.27 98.06 주유고대사관 폐쇄(주루마니아 대사관 겸임)

○ 수출입 현황 및 주요품목(2017, KITA) 교역규모(161백만불) 수출: 96백만불(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 수입: 65백만불(사료, 자동차부품 등)

6. 마케도니아 개관

❑ 일반사항

○ 수도 : 스코피예(Skopje, 48만)

○ 인구 : 210만명(2017.7)

○ 면적 : 25,713㎢(한반도의 약 1/8)

○ 인종 : 마케도니아계(64%), 알바니아계(25%), 터키계(4%), 집시(3%), 세르비아계(2%), 기타(2%)

○ 종교 : 마케도니아 정교(66%), 회교(33%), 기타(1%)

○ 언어 :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

○ 독립일 : 1991.11.20(구유고연방에서 독립)

○ 정부형태 : 의회민주제

○ 의회 : 단원제(120석, 임기 4년)

○ 주요정당 : 국민통합당(VMRO-DPMNE), 민주통합연맹당(SDSM)

❑ 경제현황(2017, EIU)

○ GDP : 114억불

○ 1인당 국민소득 : 6,295불

○ 경제성장률 : 0.0%

○ 물가상승률 : 2.4%

○ 교역규모 : 112억불(수출 46억불, 수입 66억불)

○ 화폐 : 디나르(1US$ = 47.89Den)

○ 주요자원 : 납, 아연, 구리, 니켈, 석탄, 석유, 목재, 담배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미수교국(실질협력 관계는 유지)

○ 교역현황 및 주요품목(2017, KITA) 수출 : 1,860만불(승용차, 전자제품, 기계품)

○ 수입 : 250만불(기계류, 정밀화학제품)

7. 세계은행 정보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의 금융기관으로, 전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1945년 12월 27일 설립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그 출발이었다. 이후 1956년 7월 국제금융공사(IFC), 1960년 9월 국제개발협회(IDA), 1966년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88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 5개 기구를 합쳐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IBRD와 IDA를 합쳐 흔히 세계은행(WB)이라고 부르며, 협의로는 세계은행 그룹의 핵심 기구인 IBRD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세계은행 그룹 내 개발도상국 자금지원 기관은 IBRD, IDA, IFC의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직원은 1만 3000여 명이다. 2018년 현재 189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관으로, 연간 500억~600억 달러를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IBRD의 총재 및 총회 위원, 상무이사가 IDA와 IFC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IBRD가 IDA와 IFC의 재원을 보조하는 등 3개 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은행 그룹은 1970년대까지 설립 취지에 따라 최빈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정책 목표로 삼고 프로젝트 융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수원국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융자를 확대하였다. 현재는 빈곤 퇴치와 더불어 보건, 교육, 환경 등 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세계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은 회원국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내린다. 회원국 지분이 가장 많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5개국이 각 1명을 선임하고, 20명은 나머지 회원국들이 선출한다. 이들 이사가 투표로 총재를 뽑는데, 회원국의 지분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된다. 회원국 총지분의 85%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총재로 선임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16.05%의 투표권(거부권 행사 가능)을 갖고 있고 일본, 중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유럽권의 목소리가 강한 국제통화기금(IMF)과 달리 미국 주도로 운영되며, 설립 후 11명의 총재 모두 미국인이 맡아 왔다.

우리나라는 1955년 58번째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었고, 1970년 대표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